우리집을 지켜주는 행운의 화환

화환(리스)

정읍시립박물관 문화가있는날

크리스마스 리스

Christmas Wreath

1년 중 밤이 가장 긴 동지는 음의 기운이 가장 세고 양의 기운이 가장 약한 날입니다. 음양사상에서 붉은색은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행운을 가져온다 하여 팥죽을 담은 그릇을 집안 곳곳에 놓은 후 온 가족이 함께 먹었답니다. 이처럼 나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벽사'라고 하였는데요. 서양에서도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행운과 행복을 들어오게 하는 도구가 있었으니. 바로 크리스마스 화환(리스)입니다.

리스는 영원, 승리, 태양, 추위를 이겨내는 힘 등을 상징합니다. 1839년 독일 함부르크의 신학자이자 교육자였던 요한 힌리히 비헤른은 자신이 돌보던 고아들이 매일같이 크리스마스가 언제인지 물어보자, 오래된 마차의 나무 바퀴를 가져와서 28개의 초를 꽂아 하루에 하나씩 켜서 날짜를 셀 수 있게 했답니다. 이후 1860년 경부터 전나무 가지로 바퀴를 꾸미기 시작했으며 편의성을 위해 점차 크기와 촛불의 수가 줄어들어 지금의 리스가 되었습니다. 동지와 크리스마스 리스의 의미를 생각해보며 우리 집을 지켜줄 화환을 만들어보아요.

준비물

체험키트에 들어있어요

리스틀, 편백나무 가지, 조화 열매, 솔방울
목화솜, 꽃철사, 조명전구, 마끈, 호랑이 카드



집에서 준비해주세요

가위, 본드 또는 글루건





하나

가위로 자른 편백나무 가지를
리스틀에 꽂거나, 꽃철사로 고정해요



둘

반짝반짝 조명전구를 감아요



셋

**조화 열매와 목화송을 꽂아 장식하고,
솔방울은 본드 또는 글루건으로 붙여요**

우리집을 지켜주는 행운의 화환

화환(리스)



완성

**마끈으로 리스 하단에 임인년 호랑이 기운을 담은 카드를 매달고,
상단에도 마끈을 묶어 문 앞에 걸어 두어요**

호랑이 카드에는 2022년 우리집 소망을 적어보아요

정읍시립박물관 문화가있는날